



생존을 위한 생물들의 놀라운 지혜

《자연의 슈퍼모델》
펴낸 현원복씨

“오늘을 살고 있는 동식물은 수천만년에서 수억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진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환경과 어우러져 생존하는 데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특성과 기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자연이 만든 ‘슈퍼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컬럼니스트 현원복(67)씨는 최근 그가 펴낸 책의 제목을 《자연의 슈퍼 모델》(동아출판사)이라 붙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종족을 보존하고 생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생물들의 놀라운 지혜와 사려깊은 행동을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아직까지 공개된 바 없는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밝혀진 동식물들의 생활을 풍부한 사진과 함께 보여준다.

가령, 끔찍하게 생긴 흡혈 박쥐가 인척관계도 아닌 다른 박쥐에게 먹이를 토해 나눠주는 애타심을 지녔거나 근친 결혼을 피해 가면서 종족의 우수성을 지키려는 개구리의 지혜도 놀랍기만 하다. 침팬지가 몸 속의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 약초를 찾아 먹는다면 원숭이는 특이한 나뭇잎을 따먹으면서 임신 조절을 한다.

식물들의 지혜도 만만치 않다. 스스로 도토리 생산량을 조절하여 이것을 먹이로 하는 흰발쥐의 집단 수를 제어하는 딱갈나무나 썩기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을 때 이웃한 잎에 전기 신호를 보내어 벌레의 소화를 방해하는 단백질을 대량으로 방출하게 부추기는 토마토 나무의 지혜도 예사스럽지 않다.

연희대 생물학과 1회로 입학했다가 진쟁을 만나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그는 통신사의 외신부에 일하게 되면서 과학 분야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렇게 시작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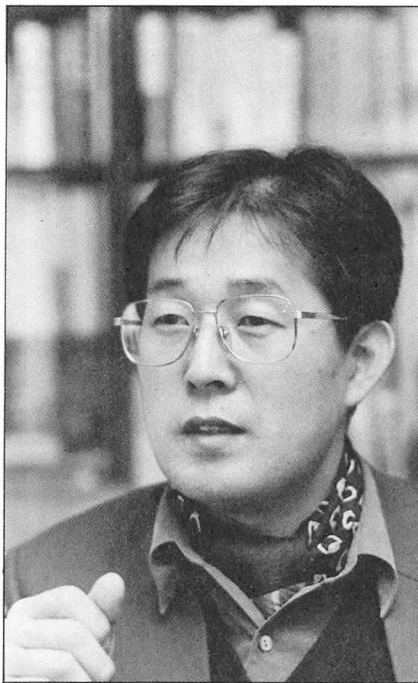
인연이 벌써 40년. 언론사를 나온 뒤로 20년 넘게 과학 컬럼만을 써오고 있는 그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보다.

“과학정보는 3년만 지나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쓸모 있는 정보를 만나기 위해서는 늘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과학정보의 양이나 질적 수준이 턱없이 낮은 우리 사회에서 과학에 한해서 만큼은 가장 빠르고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으로 손꼽힌다. 한달에 보는 외국 잡지만 줄잡아 20-30종. 관련 자료를 생명공학, 재료공학, 정보통신 등 10 개의 대주제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500여개로 분류하고 있는 자료화일은 정보의 보고다.

그는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인 넓지 않은 작업실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여 과학기사를 읽고 이를 분류하고 글을 구상하거나 쓴다. 그러느라 달리 취미도 없지만 아직도 새로운 과학정보를 대할 때마다 신기하고 놀랍고 흥미로워서 흥분되기까지 한다고.

내년쯤 선별 예정인 《첨단과학기술 용어사전》의 개정·증보판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그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다룬 책도 구상중이다.

—박남정 기자



책동네에서 느끼는 대중의 의식흐름

《책을 만나러 가는 길》
펴낸 손수호씨

“약 1년 반 동안 거의 매일같이 출판사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을 만큼 출판계를 이해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간지(국민일보) 출판담당 기자인 손수호씨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출판을 둘러싼 다양한 사연들을 책으로 써냈다. 지난 94년 6월부터 95년 말까지 일년 반 동안 신문 지상에 연재해온 ‘책동네 이야기’를 모태로 하여 반년에 걸친 보완 작업을 통해 책으로 묶어낸 것이다. 역자(譯者)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까닭에 그의 아버지가 대신해서 발문을 썼던 《청춘일기》, 80종이 넘게 중복 출판되고 있는 《어린왕자》, 21만 달러의 거금을 로열티로 지불함으로써 저작권을 따냈던 《미래로 가는 길》 등 화제를 뿌렸던 책들과 그 저자들의 이력을 중심으로 출판에 얽힌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그의 글에는 대중들의 의식 흐름이 느껴진다. 그 흐름은 시대상을 투영하고 있으며 그것은 저자 자신의 표현대로 ‘문화사의 비망록’으로 읽힌다.

모태가 됐던 글들이 모두 신문 기사형으로 씌어진 것들이어서 출판에 적합한 글로 수정하는 지난한 작업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는 손수호씨는 출판계에 의외로 관련 기록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던가요? 출판이 기록을 업으로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출판과 관련한 기록이 태부족한 현실입니다.”

출판문화의 부채를 안타까워하는 그는

역사와 사회 속에서 출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책이 출판문화에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한다.

“출판을 가깝게 접하다보니 한번쯤 직접 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더군요. 이 책을 만들면서 표지제작에서부터 세세한 마무리 작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소원을 풀었습니다.”

자신의 책을 갖게 되었다는 즐거움 못지않게 자기 손으로 책을 만들었다는 즐거움이 컸다며 웃어보이는 손수호씨는 그 제작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행복했다’고 표현한다. 앞으로 관심분야를 넓혀 나감으로써 ‘저널리즘이 본 문화’라는 테마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펴내고 싶다는 그는 기자생활을 하는 동안 담당하게 될 다양한 관심분야들을 ‘건축으로 가는 길’ ‘연극으로 가는 길’ 등과 같이 ‘길’ 시리즈로 묶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한동림 기자





신화를 통한 인간과 역사의 재해석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펴낸 유시주씨

소설을 써보면서 작가로서의 꿈을 놓지 않았죠. 그러나 80년 대학에 들어간 뒤로 15년 이상을 문학의 범위에 들어가는 글은 발표하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한 길이 따로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은 역사의식과 계급의식을 부추기는 각종 사회현상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죠.”

격랑의 80년대를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심에서 보내온 유시주씨는 아직도 무거운 기억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무수한 활동보고서와 투쟁속보를 쓰면서 변혁의 몸부림을 앓았고, 공장생활과 노동상담소, 노동자문화회 등에서 활동,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방승대본·번역·자서전 대필·취재기사 등의 각종 글쓰기 편력을 보였다.

지난 89년 노동운동가와 결혼, 현재 아이를 기르며 출판사 〈푸른나무〉에서 비상근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시주씨는 이제 진심으로 소설을 쓰고자 한다.

“젊은 시절 인생을 걸었던 목적인 원체험을 여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대의 주제, 그때 지식인들의 세계에서 말해지지 않은 것들, 자기를 감춰야 했던 강박관념과 분열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들을 내밀한 문체로 승화시키고 싶습니다.”

—이정민 기자



“문명의 정신과 삶의 구체성에 눈뜨면서 그리스인들의 신은 인간을 확대시킨, 선악을 한몸에 지닌 존재에 불과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거꾸로 읽는 세계사》《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으로 낮익은 유시민의 누이이자 소설가 유시춘과 자매지간인 유시주씨(36)는 그리스 신화를 여러 각도에서 재해석한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푸른나무)를 내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 책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것을 원용한 문학, 예술 및 여타 학문에 관한 이야기를 엮은 것으로, 인간과 역사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돋보인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신화 그 자체라기보다는 신화를 통해 바라보는 현재의 사회와 인간의 실체이다. 그것은 신화가 담고 있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남성중심적 인식구조를 뒤집어 해석하는 일과 신화가 가진 인간중심주의를 밝혀내는 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스 신화는 가부장제가 확립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신화를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남성중심사회의 횡포일 뿐, 상자를 연 판도라의 행위는 인간의 내면에 도사린 어둠을 자각하게 한 상징적 원형임을 추출한 〈판도라에게 찬사를〉이나 〈잃어버린 남신을 찾아서〉, 시인 김남주를 기리며 쓴 〈프로메테우스의 대답〉이나 김영삼식 개혁을 다룬 〈트로이의 목마〉, 박노해의 시 ‘그리운 사람’으로 마무리한 〈이카로스〉 등은 그의 그런 작업의 결과물들이다.

“대학엘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책을 읽고



정직한 체험이 묻어나는 산문집

《육성과 가성》
펴낸 김광규씨

“제 또래는 행복한 한글 첫 세대이기도 하지만 군사정권 아래서 청장년기를 다 보낸 불행한 세대들이기도 했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세대는 리얼리즘의 신봉자들입니다. 저 역시 삶의 정직한 체험을 글로 옮기는 것에 익숙합니다.”

90년대 들어 저자는 한국문학을 독일에 소개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 91년 독일에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느낀 안타까운 심정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셈이다. 《데미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독일문학이 국내에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독일에서의 한국문학소개는 그야말로 결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의 소개 작업은 이미 독일의 유력문예지에 한국문학 특집이 실리고 현지작가들이 몇차례 한국을 방문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자의 산문집에는 모나지 않은 유연함으로 다듬어진 삶의 편린들이 묻어 있다. 길다란 리얼리즘의 역사가 끝나가는 한 시기에 섬광처럼 빛을 발하는 명문들에서 우리는, 그의 시에 나오는 한구절처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목청껏 부르는’ 한 초로의 리얼리스트를 목도할 수 있다.

—허연 기자

“산문집을 세상에 내놓고 세계 가장 먼저 다가온 감정상태는 ‘긴장’이었습니다. 시만 쓰고 살아온 내가 어느 순간 책 한권 분량의 산문을 쓰고 있었구나 하는 놀라움과 독자들에게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4.19세대의 자화상을 형상화한 명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의 시인 김광규씨(55)가 첫 산문집을 냈다. 75년 계간 《문학과지성》을 통해 등단한 이후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아니다 그렇지 않다》 등의 시집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가 출간한 첫 산문집 《육성과 가성》에는 20년 동안 축적된 삶과 생각이 탁본처럼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산문들을 정리라도 해 놓는 것이 공해를 줄이는 길일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원래 창작스타일이 과격인데다 시를 쓰면서 산문을 쓰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20년이란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 상당한 분량이 되더군요.”

시와 마찬가지로 그의 산문집 역시 비영웅적인 일상의 미학이 두드러진다. 전부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1부는 저자 자신의 삶과 시에 관한 글들이 담겨 있고, 2부는 볼프 비어만, 카를 크롤로, 프란츠 카프카, 홍성원 등 그의 상상력을 촉발시킨 국내외 작가와 시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주종을 이룬다. 3부에는 주로 80년대 중후반에 쓴 서평과 월평들을 수록하고 있고 마지막 4부에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쓴 일기 몇편과 구동독 지역을 여행하고 쓴 기행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